

청동기시대 서부경남지역의 석관 연구

김동규* · 김병표* · 노재현* · 윤성현*

〈목 차〉

- I. 머리말
- II. 소형석관의 정의
- III. 대상 유적 검토
- IV. 소형석관의 유형과 기능
- V. 맺음말

국문요약

청동기시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장자를 매장하던 시대로, 석관묘의 축조방법이나 형태는 유사하나, 규모가 작은 소형석관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소형석관의 규모는 일반적인 성인이 매장되기에 불가능한 규모로 추정되는 작은 석관묘의 의미로써, 지금까지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규모도 다양하게 확인되어 그 기능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출토 인골의 신장과 현재 한국인들의 신장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인이 매장되기 힘든 장축 100cm 이하의 분묘를 소형석관으로 정의하고, 규모에 따른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1형은 81~100cm의 규모로 유·소아묘 혹은 성인의 강굴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형은 61~80cm의 규모로 유·소아묘의 강굴장을 제시할 수 있지만, 2차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까지 확인된 소형석관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 3형은 61cm 미만의 규모로 2차장 혹은 화장을 통한 장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소형석관, 유·소아묘, 2차장, 집석유구, 화장

이 논문은 2012년도 동양문화연구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재)동양문화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청동기시대는 다양한 매장방법으로 피장자를 매장하던 시대로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지석묘를 비롯하여 석관묘, 석곽묘, 토광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석관묘와 축조방법이나 형태는 유사하나 규모가 작은 석관이 확인된다. 이들은 일반 성인이 매장되기에는 작은 규모로 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유·소아묘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소형의 석관을 청동기시대 계급발생 및 세습에 대한 근거로 최몽룡(1981), 김승욱(2006), 하승철(2008) 등이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석관 내부에서 유아의 인골이 출토되는 예도 있어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에 대한 정의 없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 모두를 소형석관으로 통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소아가 매장되기엔 작은 규모로 제작되어진 것도 있으며, 내부에서 성인의 화장골이 확인된 유적도 보고되어 단순 유·소아묘로만 그 기능을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조사가 활발히 진행된 진주, 사천, 산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지역의 소형석관을 통해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소형석관의 정의

청동기시대 매장유구는 다양한 규모가 확인되고 있다. 피장자를 매장하고도 남을 만한 3m 이상의 규모를 매장주체부로 가진 지석묘도 김해 율하리 유적¹⁾과 밀양 금포리 유적²⁾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100m 이하의 길이를 가진 작은 석관도 확인된 예가 많이 있다. 이런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성인이 매장되기엔 작은 규모의 매장 유구가 확인 되었을 때 유·소아묘나 2차장의 가능성만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규모 중 성인이 매장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석관을 소형석관으로 정의하고 그런 석관에 대해 기능의 특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김해 율하리 유적II』, 2009.

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밀양 금포리 유적』, 2008.

소형석관은 단어의 뜻 그대로 규모가 소형인 석관으로 청동기시대 일반 성인이 매장되기에 작은 규모의 매장공간을 가진 유구이다. 기능은 유·소아묘³⁾로 추정하고 있으나, 규모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통계치를 통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규모 설정을 위해 먼저 당시 청동기시대 성인의 신장을 알아보면, 진주 대평 유적의 경우 남성 약 164cm, 여성 약 149cm로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외 유적의 경우<표1 참조> 인골이 확인된 유구의 매장주체부 평균 장축이 144cm 가량으로 대평인의 여성 신장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소·유아 인골이 확인된 제천 황석리 13호와 춘천 중도 1호 지석묘등과 같은 4기를 제외하면 장축길이가 평균 155cm로 성인이 굴장 또는 신전장으로 매장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에 반해 유아 인골이 확인된 석관의 규모는 평균 90.5cm로 성인 인골이 확인된 석관에 비해 60.5cm 소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유·소아의 기준이 되는 현재 5세의 평균 신장이 남아 109.6cm, 여아 108.6cm으로 현대인과 청동기인의 성인의 신장차이를 감안하여도, 청동기시대 5세의 평균 신장은 100c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100cm 이하의 소형석관에서는 성인이 매장되기가 힘들며, 기능의 특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수치는 유아묘의 규모를 장축 100cm 이하로 보는 최지혜의 견해⁶⁾와도 유사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100cm 이하를 소형석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김수환 역(타니히타마호·스즈키타카오 지), 『고고학을 위한 고인골조사연구법』, 서경문화사, 2010, 66쪽.

신생아(新生兒)	생후 1개월까지	약년(若年)	12~19세
영아(嬰兒)	1세 미만	성년(成年)	20~39세
유아(幼兒)	1~5세	숙년(熟年)	40~59세
소아(小兒)	6~11세	노년(老年)	60세 이상

학계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幼兒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김재현, 『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 2002, 139쪽.

5) 성인 인골인 대평인과 현재 성인의 평균 신장차이는 남자 7.4cm, 여자 11cm가 현재인이 더 크며, 유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치차가 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청동기시대 인골이 완형으로 잔존하는 경우가 드물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6) 최지혜, 『영남지역 고대 유아묘를 통해 본 사회적 위계화』,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쪽.

표 1. 청동기시대 석관 출토 인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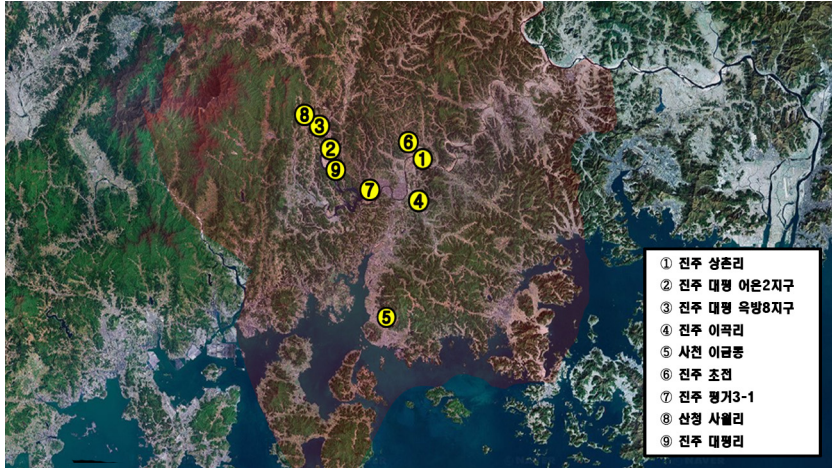
유적	유구	매장주체부 규모(cm)			장단비	매장 형태
		길이	폭	깊이		
사천 본촌리	가 1호 석관묘	150	60	54	2.5	신전장
	가 2호 석관묘	161	55	48	2.9	양와신전장, 성년후반(30대)의 여성
마산 진동1	15호 석관	97	26	39	3.7	굴장, 8세 전후의 소아
진주 옥방 5지구	A-1호 석관묘	130	45		2.8	굴장, 신장 : 148.7cm, 노년(60세 이상) 여성
대구 매호동 지석묘	I군-석관 1호	135	40	20	3.3	20세 전후의 인골 추정
대구 진천동 지석묘3	3호 석관묘B	110	47	40	2.3	굴장, 20세 전후의 여자, 추정신장 150~160cm
보은 부수리 고분군	1호 석관묘	176	70	44	2.5	1차 여성 성인인골, 2차 유아 인골 (추가장)
충주 하천리 D지구 지석묘	1호 지석묘	155	45	45	3.4	신전장
	2호 석관	137	50	40	2.7	남성, 양와신전장
제천 황석리 지석묘1	13호 지석묘	185	60	30	3.1	신전장, 남자, 추정신장 174cm
제천 황석리 지석묘2	층 6호 지석묘	190	130	50	1.4	20세 가량의 남성
제천 황석리 지석묘2	층 7호 지석묘	160	40	25	4	양와 신전장, 20~30세 남자 추정신장 140~150cm
	층 13호 지석묘	104	28	25	3.7	유아의 두개골 확인
	층 17호 지석묘	181	45	25	4	30세 전후의 남자 두개골 확인
춘천 중도 지석묘2	1호 지석묘	77	50	20	1.5	측와굴신장, 연령 4~8세, 여아
진주 어은 1지구	4호 석관묘	90	20		4.5	굴장, 8세 전후의 소아

표 2. 현대인의 평균 신장(대한의사협회자료, 1998)

남			연령	여		
신장(cm)	두위(cm)	흉위(cm)		신장(cm)	두위(cm)	흉위(cm)
50.8	34.6	33.4	출생 시	50.1	34.1	33.1
87.7	48.4	50.0	2 (2~2.5)년	87.0	47.7	49.1
95.7	49.6	51.9	3 (3~3.5)년	94.2	48.7	50.5
103.5	50.4	53.3	4 (4~4.5)년	102.1	49.6	52.3
109.6	50.8	55.0	5 (5~5.5)년	108.6	50.0	53.7
137.8	52.9	66.7	10 (10~11)년	137.7	52.3	65.2
167.8	55.0	80.6	15 (15~16)년	159.0	54.3	78.5
173.4	56.8	88.2	20 (20~21)년	160.4	55.1	81.7

Ⅲ. 대상 유적 검토

1. 대상 유적



도 1. 대상유적 분포도

표 3. 대상유적 내 소형석관 출토 현황

유적명	소형석관
1. 진주 상촌리 ⁷⁾	10기
2. 진주 대평 어은 2지구 ⁸⁾	6기
3.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⁹⁾	8기
4. 진주 이곡리 ¹⁰⁾	17기
5. 사천 이금동 ¹¹⁾	16기
6. 진주 초전 ¹²⁾	4기
7. 진주 평거 3-1 ¹³⁾	1기
8. 산청 사월리 ¹⁴⁾	5기
9. 진주 대평리 ¹⁵⁾	3기

7) 대전보건대학교박물관, 『진주 상촌리 9~13호 지석묘 및 선사유적』, 2005.

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 2005.

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진주 대평리 옥방8지구 선사유적』, 2003.

1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 2010.

11)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천 이금동 유적』, 2003.

12) 한국문화연구원, 『진주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진주 초전 환호취락유적』, 2012.

1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주 평거동 3-1유적』, 2011.

14) 동의대학교박물관, 『산청 사월리 유적』, 1999.

15) 문화재연구소, 『진양 대평리 유적』, 1994.

대상 유적은 총 9개소로 유구의 수는 70기로 소형석관은 대부분 진주지역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1) 진주 상촌리 유적

진주 상촌리 유적은 남강댐 보강공사에 대한 수몰예정 지구이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52동, 지석묘 7기, 석관묘 50기, 수혈 32기가 확인되었다. 유적 내에서 소형석관은 총 10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유물이 확인되는 유구는 4기로, I-4호, IV-2호에서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2)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유적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선사유적은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수몰되는 지역이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50동, 수혈유구 32기, 집석유구 42기, 야외노지 33기, 석관묘 9기, 지석묘 2기가 확인되었다. 소형석관은 6기가 확인되며, 유물이 확인되는 유구는 2기(7호 석관묘, 8호 석관묘)로, 7호 석관묘에서 부리형석기, 8호 석관묘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되었다.

3)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유적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유적은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수몰지역이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17동, 집석유구 10기, 야외노지 16기, 수혈 125기, 석관묘 21기가 확인되었다. 소형석관은 8기(4호 석관묘, 6호 석관묘, 8호 석관묘, 11호 석관묘, 14호 석관묘, 17호 석관묘, 19호 석관묘, 21호 석관묘)로 유물이 확인된 유구는 3기(4호 석관묘, 8호 석관묘, 21호 석관묘)로, 21호 석관묘에서 적색마연호가 확인되었다.

4) 진주 이곡리

진주 이곡리 유적은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의한 구제발굴로, 청동기시대 묘 41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소형석관은 16기가 확인되었다. 소형석관 17기 중에 유물이 확인되는 것은 7기로, 대표적인 유물로는 15호의 일단경석축, 16호의 채문토기, 구순각목 공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27호의 채문토기, 28호의 구순각목공열문토기, 41호의 채문토기가 확인된다.

5) 사천 이금동 유적

사천 이금동 유적은 사천 기능대학 건립부지 건설의 일환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24기, 건물지 25기, 지식묘 및 석관묘 74기가 확인되었다. 사천 이금동 유적에서 확인된 소형석관은 16기가 확인되었다. 소형석관에서 유물이 확인되는 유구는 3기로, 석축이 확인되었으나,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어 정확한 형태를 구분하기는 힘들다.

6) 진주 초전 환호 취락유적

진주 초전 환호 취락유적은 진주 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건설의 일환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59동, 석관묘 11기, 고상건물지 14동, 장방형 목책열 1기, 수혈유구 157기, 대상유구 81기, 환호 1열, 함정 11기 등이 확인 되었다. 진주 초전 환호 취락유적에서 확인되는 소형석관은 4기이다. 그 중 유물이 확인되는 유구는 2기로, 옥제품이 확인되었다.

7)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은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한 진주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건설의 일환으로 그 중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생활유구 및 매장유구 129기와 경작유구(논 2개 층)가 확인되었다.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A지구에서 소형 석관 1기(36호)만 확인되었다. 소형석관에서 확인된 유물은 무문토기저부편이 확인되었다.

8) 산청 사월리 유적

산청 사월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소형석관은 총 5기이다. 유물이 확인되는 유구는 1기로 일단병식석검과 세장유경축 등이 확인되었다.

9) 진주 대평리 지식묘

진주 대평리 지식묘 유적은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수몰지역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 지식묘 및 석관묘 32기가 확인되었다. 소형석관은 3기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유적 시기 설정

소형석관은 유물의 출토빈도가 낮고, 출토되더라도 소량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형석관의 정확한 편년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적 내에서 함께 확인되는 매장유구와의 시기비교가 불가피하여, 보고자의 시기설정을 중심으로 소형석

기존 연구자 중 최몽룡은 나주 판촌리의 석실 가운데 1.1~1.5m에 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피장자가 성인이라 가정할 때 세골장 또는 굴신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세골장을 채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¹⁷⁾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근거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김승옥은 유력 군집모에서는 유·소아묘로 상정할 수 있는 소형묘가 함께 발견되며, 따라서 유력 군집모는 친족적으로 가까운 성인과 유·소아가 함께 매장된 다는 점에서 ‘유력 출계 집단’ 혹은 ‘유력 세대공동체’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¹⁸⁾ 단지 규모가 소형이라는 이유로 유·소아묘로 추정하고, 그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불평등 지위 세습 여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소형석관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형석관을 매장방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석관의 장축길이를 통해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소형석관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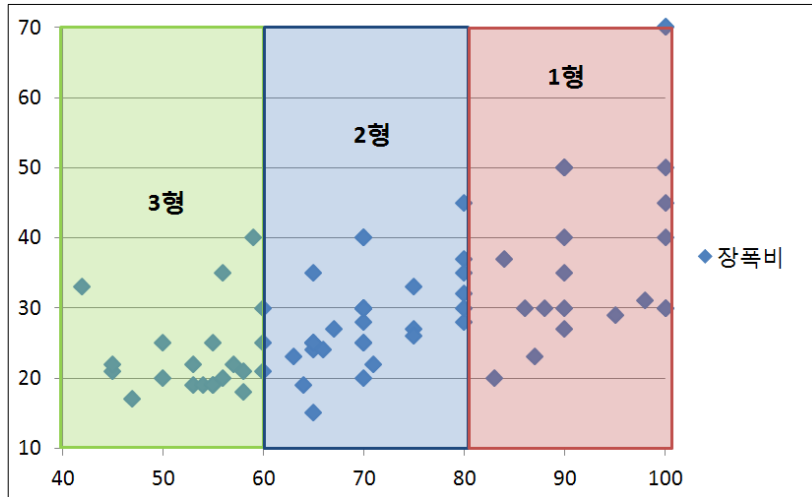
소형석관은 치석된 판석이나 활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형태로 조성된 매장주체부로 규모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표 5>를 보면 크게 81cm 이상 100cm 이하의 1형, 61cm 이상 81cm 미만의 2형, 그리고 61cm 미만의 3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형과 2형의 분류기준이 되는 길이 80cm는 청동기시대 당시 유·소아묘의 인골이 확인되는 석관의 평균 규모가 90.5cm인 점과 출생 후 1년이 지난 현대유아의 평균 신장이 87cm인 것을 기준으로 80cm 이하의 규모에서는 유·소아묘의 신전장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형과 3형의 기준이 되는 60cm는 유·소아를 굴장 하여도 매장이 불가능한 규모로 평균 신장 100cm의 유·소아가 강굴을 하더라도 60cm 이하의 규모에는 시신을 온전히 유지한 상태로는 매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치이다.

17) 최몽룡,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와 계급의 발생』, 『한국사연구』35, 한국사연구회, 1981, 2~3쪽.

18) 김승옥,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2006, 56쪽.

표 5. 소형석관 유형 분류표



1형은 소형석관 중에서는 대형으로, 유·소아를 굴장 또는 신전장으로 매장 이 가능한 경우이다. 2형은 중형으로 유·소아라 하더라도 신전장되기 쉽지 않은 규모로, 다른 장법을 이용하여 매장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3형은 61cm 미만의 소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신을 온전한 방법으로는 매장 하기 힘든 유형이다. 인골 중 가장 긴 부위는 대퇴골로서 이 부위를 이용하여 인골의 신장을 추정할 수도 있다. 피어슨식¹⁹⁾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의 대퇴골이 40cm일 때 추정 신장은 약 156cm로 대평유적에서 확인된 성인남성의 신장 164cm 를 기준으로 하면 대퇴골의 길이는 약 45cm 정도이다. 이에 다른 인골들과의 매 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cm 이상의 매장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소형석관에서 1형의 경우에는 기능을 유·소아묘로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2형은 유·소아묘로의 가능성도 제기 할 수 있 으나 2차장과 같은 다른 장법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3형은 규모자체가 온전한 형태의 시신이 매장되기 힘든 규모로 다른 장법을 통해 매장 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¹⁹⁾ 피어슨식 남성의 경우 $0.1880 \times F + 81.306$, 여성의 경우 $0.1945 \times F + 72.844$ 의 수식으로 계산되며 이 수식의 F는 대퇴골의 길이를 뜻한다.

2. 소형석관의 기능

유형분류에서 규모를 통해 소형석관 중 대형에 속하는 1형, 중형에 속하는 2형, 소형에 속하는 3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단순히 화장이나, 유·소아묘, 2차장으로 추정되고 있는 기존의 의견을 대퇴골의 길이나, 청동기시대 출토 인골 및 현재 유·소아의 신장을 중심으로 기능을 추정해 보고자한다.

1) 1형(유·소아묘)

표 6. 1형 대상유구 제원표

유 적	장축(cm)	단축(cm)	장단비
사천 이금동	100	30	3.3
사천 이금동	100	50	2.0
사천 이금동	100	30	3.3
사천 이금동	100	70	1.4
사천 이금동	100	40	2.5
사천 이금동	90	35	2.6
산청 사월리	86	30	2.9
산청 사월리	95	29	3.3
진주 초전 환호취락유적	83	20	4.2
진주 초전 환호취락유적	90	50	1.8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87	23	3.8
진주 이곡리	84	37	2.3
진주 이곡리	88	30	2.9
진주 이곡리	90	50	1.8
진주 이곡리	90	27	3.3
진주 이곡리	90	30	3.0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90	40	2.3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98	3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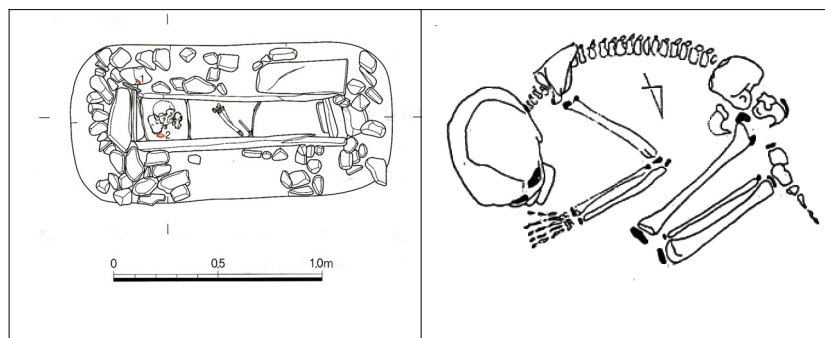
기존 소형석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 유·소아묘이다. 춘천 중도 유적이나, 진주 어은유적에서 100cm 이하의 소형석관에서 유아의 인골이 발견되어 소형석관은 유·소아묘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기존 유아의 인골이 확인된 소형석관도 최대 104cm에서 최소 77cm로 현재의 유아도 매장될 수 있는 크기로 100cm 이하 80cm 이상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지혜는 마산진동유적의 경우 장축 97cm의 15호 석관에서는 8세를 전후한 소아가 굴장된 것을 보고, 석관의 크기가 100cm 이하일 경우 유·소아묘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²⁰⁾

현재 청동기시대 매장유구 중 유·소아의 인골이 확인된 곳은 총 4곳이며, 이 중 나이가 가장 어린 것으로 판단되는 진주 어은 1지구 4호 석관묘를 보면 사지골은 강굴이 된 채 매장이 이루어졌으나 석관의 규모는 90cm이며, 가장 소형의 경우도 77cm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당시 관을 제작하는데 있어 정확한 규격화가 힘든 것을 감안할 때 80cm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1형에 해당하는 100cm 이하 81cm 이상은 유·소아묘로 추정된다.

표 7. 유·소아인골이 확인된 소형석관 제원표

유적	유구	규모(cm)			장단비	유물	비고
		길이	폭	깊이			
춘천 중도 지석묘2	1호 지석묘	77	50	20	1.54	일체형석축	측와굴신장 연령4~8세, 여아
제천 황석리 지석묘2	총 13호 지석묘	104	28	25	3.7	적색마연토기	유아 두개골 확인
진주 어은 1지구	4호 석관묘	90	20		4.5	-	두개골 - 양와 사지골 - 강굴 소아(5세전후)
마산 진동1	15호 석관	97	26	39	3.7	세장유경축 일단경식석축	굴장 8세 전후 소아



도 2. 마산진동 석관묘 15호

도 3. 춘천 중도 유적

20) 최지혜, 앞의 논문, 14쪽.

2) 2형(유·소아묘 또는 2차장²¹⁾)

표 8. 2형 대상유구 제원표

유 적	길이(cm)	너비(cm)	장단비
사천 이금동	70	25	2.8
사천 이금동	70	30	2.3
사천 이금동	70	30	2.3
사천 이금동	70	30	2.3
사천 이금동	70	20	3.5
사천 이금동	70	30	2.3
사천 이금동	70	30	2.3
사천 이금동	70	40	1.75
산청 사월리	70	28	2.5
진주 대평리 지석묘	63	23	2.7
진주 대평리 지석묘	75	27	2.8
진주 대평리 지석묘	65	24	2.7
진주 이곡리	64	19	3.4
진주 이곡리	65	15	4.3
진주 이곡리	65	25	2.6
진주 이곡리	80	37	2.2
진주 이곡리	80	32	2.5
진주 이곡리	66	24	2.8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65	35	1.9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65	25	2.6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70	40	1.75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70	30	2.3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67	27	2.5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71	22	3.2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80	35	2.3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80	28	2.9

21) 2차장은 賓의 개념으로 가묘(임시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는 풍장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시체를 밖에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법으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옷을 입힌 채 거적에 싸서 바깥에 두었다 하여 폭장(曝葬) 또는 공장(空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가묘의 위치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데, 시신을 나무 위나 나뭇가지 사이에 두는 것을 수장(樹葬) 또는 수상장(樹上葬)이라고 한다. 또 시령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 장법인 대상장(臺上葬), 동굴안에 두는 동굴장, 절벽 끝에 두는 애장(崖葬)도 있다.

유 적	길이(cm)	너비(cm)	장단비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65	25	2.6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75	33	2.3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75	26	2.9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80	45	1.8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80	30	2.7
진주 초전 환호취락유적	70	25	2.8

2형은 성인이 신전장 혹은 굴장으로 매장되기 불가능한 규모로, 유·소아묘 또는 2차장으로 추정 되는 유형이다. <표 2>를 보면 5세 소아는 109cm 정도의 신장이며, 청동기시대 소아도 약 100cm 내외의 신장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아를 신전장으로서는 매장하기 힘든 규모로 판단되나, 강굴로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2형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형석관만 확인되고 성인 인골이 매장되기에 용의한 매장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유적들이 있어, 단순 유·소아묘만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소형석관만 확인되는 유적 내에서는 2차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차장은 70년대부터 꾸준히 제시²²⁾되고 있는 장법이다. 이런 2차장의 장법 중 하나로 현재까지 전라도 도서지방에서 초분이라는 세골장이 행하여지고 있다. 초분의 방법을 살펴보면 시신을 3년 정도 덕대라는 적석 위에 시신을 모셔둔 뒤(도 6 참고) 시신이 육탈(肉脫)되고 난 후 인골을 세골하여 본장지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청동기시대 2차장과 그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분을 할 때 인골만 본 장지에 묻는 이유는 영혼은 뗏속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비천하게 살거나,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죽거나, 매장할 만한 사유지가 없거나 사유지가 있어도 길지가 없는 경우 치렀다.²³⁾ 또한 돌림병으로 죽은 자로부터 역신을 쫓아버리기 위해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도서지역에서 초분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효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반 매장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²⁴⁾

이러한 2차장의 근거가 현재까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고고학적으로 확인 되지 않지만 신석기시대 말기로 보고된 울진 후포리 유적에서 세골장 한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내부에 40여기의 인골이 추가장의 형태로 매장된 것으로 일부 신전장의 형태로 확인되는 인골도 있으나 이들도 육탈된 뒤 뼈만 추슬러 넣은 세골장의 형태로 확인되고 있어 신석기시대에 이미 2차장의 장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22) 김원룡, 『한국 고고학 개설』, 일지사, 2005, 95쪽.

23) 양승이, 『한국의 상례』, 한길사, 2009, 100~101쪽.

2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2003, 41쪽.

고대문헌사에도 2차장과 관련된 문헌 내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장례방법으로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²⁵⁷⁾

이런 2차장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적으로 울주 길천,²⁶⁾ 마산 진북,²⁷⁾ 창원 마천²⁸⁾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들의 특징은 묘역군에 원형 내지 방형계의 집석유구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매장될 수 있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소형석관만 확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울주 길천유적은 소형석관을 매장주체부로 가진 묘역식 지석묘와 3기의 집석유구가 하나의 세트관계로, 2개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집석유구에 가매장을 하고 소형석관을 매장주체부로 한 묘역식 지석묘를 본 매장지

²⁵⁷⁾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 2차장에 대한 기록은 고대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과 같은 고서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고대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여

『三國志』, 魏志, 東夷, 夫餘 “男女淫婦人 妬皆殺之 尤憎妬己殺尸之國南山上 室腐爛 女家欲得 輪牛馬之興之”

『三國志』, 魏志, 東夷, 夫餘 “其死夏月皆用冰 殺人殉葬多數者 有棺無槨(魏略曰 其欲停喪五月 以久偽榮 其祭亡者有生有熟喪主不欲連而他人強之 常諍引 以此偽節 其居喪男女皆純白婦人著 布面衣 去環佩大體與中國相彷彿也)”

② 고구려

『三國志』, 魏志, 東夷, 高句麗 “男女已嫁娶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盡於送死積石偽封 列 種松柏”

『隋書』, 高句麗 “死者賓於居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 山上王 元年 “闕須哀哭 收其屍 草葬訖而還”

③ 동옥저

『三國志』, 魏志, 東夷, 東沃沮 “其葬作大木槨長十餘丈 開日頭作戶 新死者皆家埋之丈例價形 皮 肉盡 乃取骨置槨中 舉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 置米其中 編懸之於槨戶邊”

④ 삼한

『三國志』, 魏志, 東夷, 弁辰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列子 湯問』 “楚之東有炎人之國 其親戚死 朽其肉而棄之 然後埋其骨乃成爲孝子”

『三國志』, 魏志, 東夷, 韓 “其葬有棺無槨 不知乘牛馬 牛馬盡於 送死”

⑤ 백제

무령왕릉 왕비의 지석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大妃壽 終居喪在西地己酉年二月癸 未朔十二日 甲午改葬還大墓立 志如左”

武零王陵 誌石 “錢一萬文 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以前件錢詢土王 土 佰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 買申地爲墓古立券爲明 不從律令”

⑥ 고려시대

『高麗史』卷3, 成宗9年 9月 丙子 “南海狼山島民能宣女咸富, 其父死於毒池, 殯於寢室, 凡五月, 供膳無異平生”

²⁶⁾ 동양문물연구원, 『울주 길천 유적』, 2013.

²⁷⁾ 동아세이문화재단연구원, 『마산 진북 신촌·망곡리유적』,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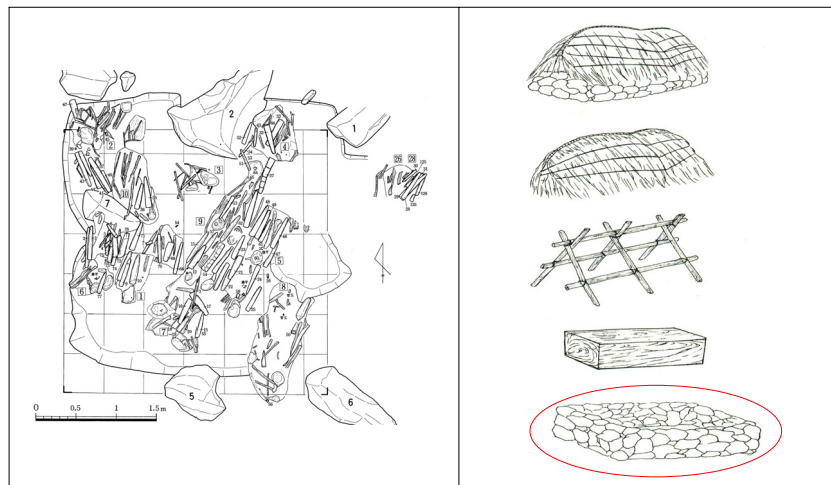
²⁸⁾ 경남발전연구원, 『창원 마천유적』, 2013.

로 삼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²⁹⁾ 집석유구는 현재의 초분에서 사용되는 덕대의 기능(도 5 참고)을 한 것으로 시신의 부패를 원활하게 하며, 유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³⁰⁾

마산진북유적 2구간의 경우 4기의 집석유구와 1기의 소형석관이 확인되며, 창원 마천유적은 원형의 지상식의 집석유구와 소형석관 2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길천유적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동일하게 집석유구와 소형석관이 세트관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진 2차장의 기록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경상남도 편』³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초분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다른 이름인 ‘채봉’, ‘우채봉’, ‘치봉’, ‘우봉’이라고 부르는 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명칭의 차이 일뿐 전라도의 초분의 매장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2차장은 전 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2형에 해당하는 61cm 이하 81cm 미만은 유·소야묘 혹은 2차장으로 추정된다.



도 4. 울진 후포리유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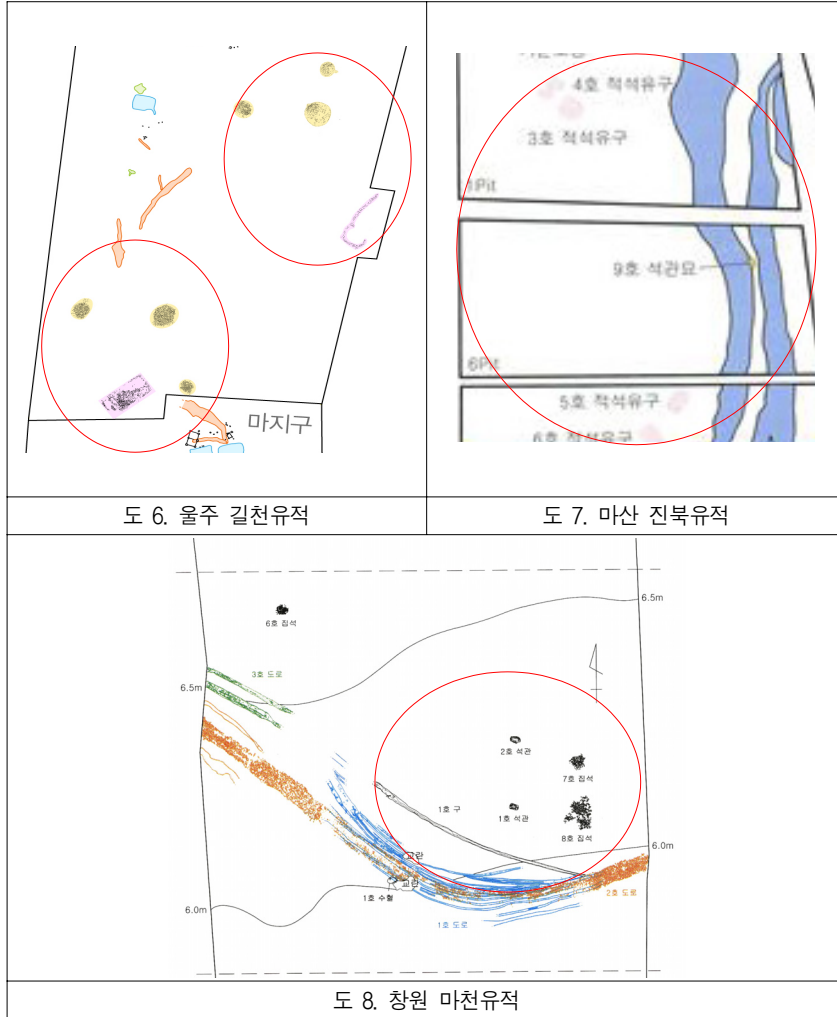
도 5. 초분 제작 과정³²⁾

29) 김동규, 『길천유적의 장송의례』, 『울산 길천유적』, 2013, 558~571쪽.

30) 김동규,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4쪽.

31)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경상남도 편』, 1972, 168쪽.

32) 이광규, 『초도의 초분』, 1969, 75쪽.



3) 3형(2차장 또는 화장)

표 9. 3형 대상유구 제원표

유적	길이(cm)	너비(cm)	장단비
사천 이금동	60	30	2
사천 이금동	50	25	2
산청 사월리	55	19	2.9
산청 사월리	57	22	2.6
진주 대평리 지석묘	42	33	1.3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55	25	2.2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59	40	1.5

유 적	길이(cm)	너비(cm)	장단비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60	25	2.4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47	17	2.8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53	22	2.4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58	21	2.8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60	21	2.9
진주 상촌리 9~13지석묘	56	35	1.6
진주 이곡리	53	19	2.8
진주 이곡리	45	21	2.1
진주 이곡리	45	22	2.0
진주 이곡리	54	19	2.8
진주 이곡리	55	19	2.9
진주 이곡리	56	20	2.8
진주 평거 3-1지구	58	18	3.2
진주 초전 환호취락유적	50	20	2.5

3형은 온전한 상태의 시신은 어떠한 형태로도 매장이 불가능한 규모로, 2차 장이나 화장의 가능성이 제시할 수 있다. 화장은 시신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화장을 행하는 가운데 대부분 인골이 파쇄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유·소아묘나 세골장보다 협소한 공간에 매장할 수 있는 장법이다.

청동기시대 화장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유적은 서부경남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기도 평택 토진리 유적에서 유사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평택 토진리 석관은 길이 45cm, 너비 19cm로 성인은 물론 유아도 매장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내부에서 성인인골편이 확인되었다. 석관과 인접하여 집석유구에서도 성인인골편이 확인되었는데, 둘 다 화장골로 700~800℃ 정도의 열에 의해 노천에서 화장된 것으로 보고자는 보고하고 있다. 집석유구의 소토층에서 확인된 인골편과 석관내부의 인골편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가정하면 노천에서 화장을 한 후 인골과 숯을 소토층으로 1차로 옮기고 다시 인골만 선별하며 석관묘 내부에서 매장한 것으로 보고자는 판단하고 있다.

화장에 관련된 자료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 길림성 지석묘는 “화장을 한 후 상석을 덮는다고 하였다.”라는 견해로 무덤과 화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판단³⁷⁾하고 있을 정도로 화장이 일반화 된 것으로 파악된다. 화장 방법은 대부분 무덤 내에서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인골 위에 한 층의 나뭇잎 혹은 나무껍질을 펴놓고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인골 아래에서 다량의 목재들이 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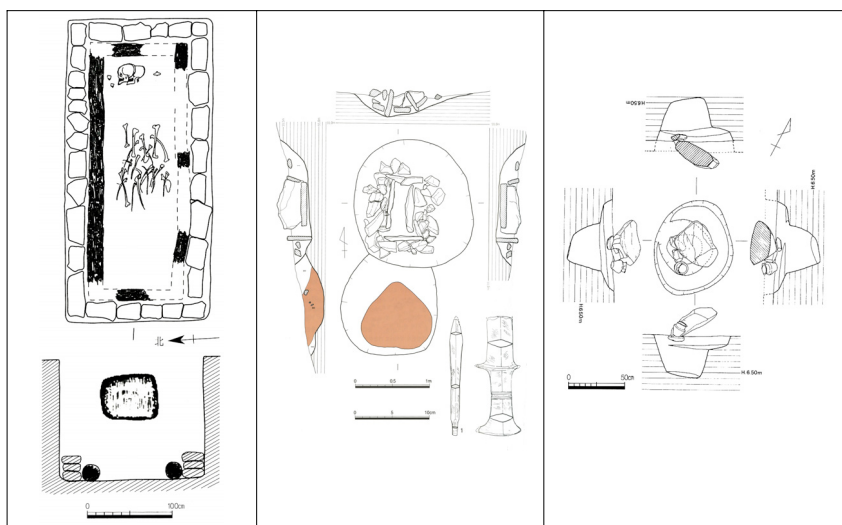
37) 白雲翔, 『중국의 지석묘』, 『중국의 지석묘』 동북아시아 지석묘5, 2011, 41쪽.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³⁴⁾

일본 후쿠오카현 마가리타(福岡縣 曲リ田)지석묘³⁵⁾에서는 소형석관이 확인되고 있다. 석관의 장축이 평택 토진리와 유사하고 내부에서 숯을 비롯한 화장골편이 출토되고 있어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후쿠오카의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하부구조는 신전장이 가능한 130cm 이상의 규모를 대부분 가지고 있으나, 소수의 지석묘만이 100cm 이하의 묘실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마가리타 지석묘 1호가 가장 소형의 석관으로 확인된다.

표 10. 화장인골이 출토된 묘제

유적	유구	규모(cm)			유물	비고
		길이	폭	깊이		
마가리타 지석묘	1호	50	40	15	소형호 1	목탄 탄뺨조각
평택 토진리	1호 석관묘	45	19	25	석촉 1 석검 1	화장골, 목탄
등평 튀야오춘	1호	245	170	56	석연마기 1 녹송석관 1	화장인골 목탄



도 9. 등평 튀야오춘 지석묘 1호

도 10. 평택 토진리 소형석관

도 11. 마가리타 지석묘 1호

3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중국의 지석묘』 동북아시아 지석묘5, 2011, 67쪽.

3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일본의 지석묘』 동북아시아 지석묘6, 2011, 38쪽.

4) 유형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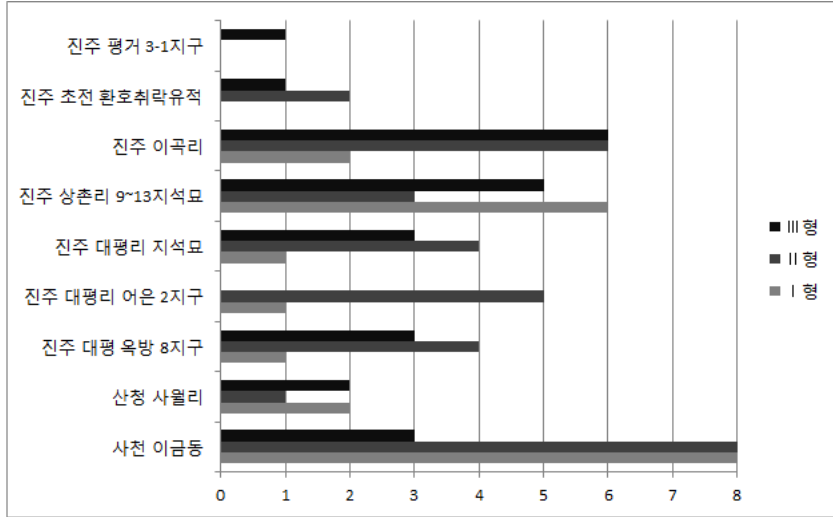
1형은 성격을 유·소아묘으로 추정하였으나, 성인의 굴장 기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천 이금동유적과 진주 상촌리 유적은 대형의 지식묘와 기타 분묘들이 많이 확인되어 권력자의 자제의 무덤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소형이긴 하지만 유·소아가 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층계급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들 유·소아는 성취된 지위라기보다는 귀속적으로 얻어진 지위로 당시 청동기 사회가 세습적으로 귀속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⁶⁾ 시대는 다르지만 삼국시대 유구인 고령지산동 35호 연결석곽의 피장자가 5세 유아이면서 철검과 함께 많은 무기를 부장하고 있거나, 30호분의 부곽에서 어린이가 금동관을 쓰고 매장되었으며, 비슷한 사례로 어은 1지구 4호 석곽묘에서는 5세 전후의 어린이가 매장된 것에서 청동기시대에도 5세 전후의 어린이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되어져 장례가 행하여졌음을 알게 한다.³⁷⁾

2형은 80~61cm의 규모로 2차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소형석관이다. 유·소아묘의 가능성을 제기 할 수도 있지만 유·소아가 신전장으로 매장되기에 규모가 작고, 2형의 묘제만 확인되고 있는 유적이 있어 단순 유·소아묘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나 삼국사기 등에 2차장과 관련된 기록들이 확인되며, 세골장의 일종인 초분이라는 형태의 2차장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신석기시대 말기에 세골장을 이용한 매장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2차장 중 세골장과 그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묘의 개체수도 각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시 장법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형은 61cm 미만으로 시신을 온전한 형태로 매장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도 행하여지고 있는 화장이나 인골만 추슬러 시신을 모시고 있는 유태발굴단의 소관의 크기를 보아도 60cm 가량의 크기로 시신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매장을 하기 힘들다. 이에 화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요동 지방을 비롯하여, 일본 구주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장법이다. 하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를 통해 보면 중국의 화장방법은 시신을 신전장으로 매장주체부에 매장 후 불을 놓는 형태로 확인되지만, 한반도와 일본 구주북부지방은 외부에서 화장한 후 인골만 추려서 소형석관에 안치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³⁶⁾ 최몽룡, 앞의 논문, 3쪽.

³⁷⁾ 김재현, 『부산·경남지역 고대 장송문화의 정체성과 접변양상』, 『석당논총』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4, 330~331쪽.



도 12. 유적별 소형석관 현황

V. 맺음말

지금까지 서부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소형석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소형석관은 성인이 매장되기에는 작다는 이유와 일부 유아의 인골이 출토되고 있는 점을 들어 그 기능을 단순히 유·소아묘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소형석관에서 성인의 화장골이 출토되는 점과 성인이 매장 가능한 다른 묘제들이 확인되지 않고 소형석관만 확인되는 유적이 있어 단순 유·소아묘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인골 신장과 현재 한국인들의 신장을 고려하여 성인이 매장될 수 없는 장축 100cm 이하를 소형석관으로 정의하고 기능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장축 규모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대형에 속하는 1형 외에는 단순히 유·소아묘로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나머지 2형과 3형은 기존의 일반 매장법과 다른 매장법으로 접근이 필요하였으며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2차장과 화장이었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1형은 유·소아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동기 사회가 세습적으로 귀속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형은 유·소아묘와 2차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3형은 61cm 미만의 소형으로 이는 2차장 또는 화장을 통해 시신을 모시는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화장의 경우

일본 구주북부지역인 후쿠오카의 마가리타 유적과 평택 토진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소형석관과 그 형태와 매장방법이 유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소형석관에 대한 정의와 유형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을 서부경남으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자료 분석 및 검토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유형 분류의 경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까지 발굴된 청동기인들의 신장과 현대인들의 신장을 기준으로 60cm, 80cm으로 분류 하였다. 하지만 당시 석관을 제작할 때 수치적 기준을 가지고 소형석관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매장방법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에 유적의 검토대상을 점차 넓혀가면서 잘못되거나 누락된 점은 수정·보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투고일 2014년 1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5일 |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7일 ■

참고문헌

<국내>

- 국립중앙박물관, 「황석리 유적」, 『한국지석묘연구』, 1967.
- 이광규, 「초도의 초분」, 『민족문화연구』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9.
-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경상남도 편』, 1972.
- 최몽룡,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와 계급의 발생」, 『한국사연구』35, 한국사연구회, 1981.
- 강원대학교박물관, 『중도 고인돌 발굴 조사보고』, 1984.
- 문화재연구소, 『진양 대평리 유적』, 1994.
- 栗本 吉基, 「한일 이중장제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동의대학교박물관, 『산청 사월리 유적』, 1999.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晋州 大平里 漁隱2地區 先史遺蹟 I』, 2001.
- 김재현, 「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국립진주 박물관, 2002.
-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천 이금동 유적』, 2003.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진주 대평리 옥방8지구 선사유적』,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2003.
- 김재현, 「부산·경남지역 고대 장송문화의 정체성과 접변양상」, 『석당논총』3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4.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 2005.
- 김원룡, 『한국 고고학 개설』, 일지사, 2005.
- 대전보건대학교박물관, 『진주 상촌리 9~13호 지석묘 및 선사유적』, 2005.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평택 토진리 유적』, 2006.
- 김승욱,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2006.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마산 진동 유적 I』, 2008.
-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마산 진북 신촌·망곡리유적』, 2008.
- _____, 『밀양 금포리 유적』, 2008.
- 하승철, 「진동유적을 통해 본 남해안 지역의 네트워크」, 『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 자료집, 2008.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김해 율하리 유적II』, 2009.

- 양승이, 『한국의 상례』, 한길사, 2009.
- 김수환 역(타니히타마호·스즈키타카오 저), 『고고학을 위한 고인골조사연구법』, 서경문화사, 2010.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 2010.
- 최지혜, 『영남지역 고대 유아묘를 통해 본 사회적 위계화』,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주 평거동 3-1유적』, 2011.
- 경상대학교박물관, 『사천 본촌리유적』, 2011.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중국의 지식묘』 동북아시아 지식묘5, 2011.
- _____, 『일본의 지식묘』 동북아시아 지식묘6, 2011.
- 白雲翔, 『중국의 지식묘』, 『중국의 지식묘』 동북아시아 지식묘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1.
- 김동규,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국문화재연구원, 『진주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진주 초전 환호취락유적』, 2012.
- 경남발전연구원, 『창원 마천유적』, 2013.
- 김동규, 『길천유적의 장송의례』, 『울산 길천유적』, 동양문화재연구원, 2013.
- 동양문화재연구원, 『울주 길천 유적』, 2013.

Abstract

A study in Western Gyeongnam cist of the Bronze Age

Kim, Dong-Kyu · Kim, Byung-Pyo
Noh, Jae-Heon · Yun, Sung-Hyun

In the Bronze Age,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bury a body. In particular, very small-size cists are frequently found while the way to build them and their shape are similar to a traditional stone coffin tomb. These cists are too small in size for an adult body to fit. The functions of such small cists are not clearly defined since clear criteria are not set up yet and there are a variety of sizes.

In this work, we defined a *small cist* as a tomb whose size is less than 100cm in length so that an adult body cannot fit. This definition is based on the height of people in the Bronze Age and Koreans of nowadays.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cists, they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ype I* is a cist for children, which shows that the Bronze Age is a hierarchical society with hereditary succession. *Type II* shows the possibility of second burial and has the largest population. *Type III* is less than 60cm in length and is presumed for burial after cremation. Especially the Margarita remains in Fukuoka, the northern region of Japan, are very similar to the cists found in Tojin-Li, Pyeongtaek in terms of size and burial methods.

Key Words : small cist, children toms, second burial, Jip-suk remains,
cremation

